

성형수술의 필요성

이 덕 주 · 이덕주성형외과

일 반인들이 생각하는 성형수술은 쌍꺼풀 수술이나 코를 높이는 수술을 먼저 떠올리기 쉽다. 가장 많은 수술 종류가 이것이므로 당연하다고 보아진다.

그러나 심심치 않게 전신 마취를 필요로 하고 또 여러 곳을 동시에 하는 복합적인 수술을 원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. 복합적인 수술은 그 효과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의사인 본인 뿐 아니라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조차 한참 뒤 다른 수술을 받기 위해 상담차 온 환자를 못 알아보고, “어떻게 오셨어요?”하는 수도 있다.

미국의 저명한 교수가, 수술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수술 후 자기 모습의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혼란해 하는 실제 예가 있었다며 상담의 중요성을 잊지 말라던 기억이 난다.

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, 많은 변화를 원하는 환자는 인생의 큰 일을 겪거나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.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하거나, 배우자의 상실 후 마음을 잡기 위해서라든지 등등 이었다.

얼마 전 젊은 미혼여성이 매부리코와 긴 턱을 수술하고자 하여 상담차 내원하였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, 그녀는 어릴적 음악에 재능이 있다고 하여 훌륭한 음악가를 인생의 목표로 하고 노력해왔다고 한다. 그런데 좋은 대학을 나오고도, 주변을 보니 실력이 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았고 성공한 몇몇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크게 실망을 했다고 한다.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여성도 경제력을 갖추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전공을 훨씬 다양한 직업 선택이 가능한 실용미술 계통으로 바꾸고 수술을 결심했다고 한다.

얼마 전의 통계이긴 하지만 외국 잡지에 미남, 미녀가 소득이 더 높고, 키가 큰 사람이 훨씬 더 승진에 유리하다는 기사가 실리기 무섭게 국내 모 T.V에서 자동차 고장을 가장하여 대조적인 두 여성이 한적한 길가에서 난처해 할 때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빈도를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. 남자의 경우도 입사를 가장해 면접을 보아 그 반응을 보는 프로가 있었는데 모두 미남, 미녀가 훨씬 유리하였다.

사회가 이렇다 보니 가능하다면 성형수술을 받고 싶다는 추세가 되어 이제는 성형외과 교과서에 나와 있는 “미용성형수술의 그 근본 목적은 환자에 내재된 열등감을 해소시켜 대인관계나 성격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주는데 있다”는 글을 수정해야 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보여진다.

지난 겨울 용모 때문에 번번이 취직에 문제가 생겨 고민하던 중 수술을 받고 취직되었다는 환자 부모의 전화는 최근 심각해진 경쟁사회의 단면으로, 불경기와 취직난이 미용 성형수술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면 지나친 상상일까?(02-518-9064~5) **W**

